

경도 레지던스 건립 반대 목소리 커진다

경도 진입부에 100m짜리 고층 레지던스 11개동 웬말 여수시의회, 국감 촉구 결의안 가결 미래에셋·전남도 압박

미래에셋그룹 측이 추진하는 여수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사흘간의 도정질문에서 연일 경도 개발 사업을 도마 위에 올려 경도 진입부 고층 레지던스 건립 적정성 등을 따졌고, 여수시의회는 경도 레지던스 건립 추진을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감사와 감사원 공익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미래에셋그룹과 전남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동시 압박하고 나섰다.

강정희 전남도의원(민주당·여수 6)은 8일 제 35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내용대로, 경도 진입부에 100m 높이의 레지던스가 늘어선다면 제대로 된, 세계적인 해양관광 단지가 되겠

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는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가 지난 4월 1차 재검토 의결 당시 ‘차폐감 및 위압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규모, 형태, 디자인 등을 개선하라’는 의결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레지던스 신축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켜 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래에셋그룹 측이 당초 경도 개발 사업 계획에 없던 레지던스 건립을 추진하면서 경도 및 남해안 조망 훼손 비판과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는데도, 인허가 당국이 제대로 된 규제하지 않았다고 보고 전남도 입장을 물은 것이다.

전남도가 건축경관심의의 제대로 하지 않아, 미래에셋그룹 측은 경도 진입부 6만5000㎡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타워형 레지던스

1184실(11개 동)을 짓겠다는 당초 안에서 고작 객실 13실만 줄이고 건축허가 신청서를 광양만권 경제청에 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영록 지사는 “(여수지역사회 우려와 같이) 부동산 투기처럼 투자하고 결국, 투기사업으로 변질된 뒤 자산을 회수하고 나가는 사업은 절대 안 된다”며 “특히 향후 건립될 레지던스가 일반 아파트처럼 거주하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경도 레지던스 건립과 관련해 여수시의회는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지난 7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경도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국정감사 및 감사원 감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가 경도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과 감사원이 각종 의혹 해소 위해 공익감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의회, 코로나 추경에 30억 민원성 예산 키워내기

광주시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편성된 광주시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지역 민원성 예산 26억원을 신규로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광주시가 추진중인 관문형 폴리 예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은 전액 삭감했다.

따라서 시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지역의 민원성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8일 2차 추경안 심의를 통해 시청 소나무 숲 공간조성 사업비와 광주 폴리 운영비 등을 포함해 8건에 36억1000만원 삭감하고, 자치구 도로 개설 및 보도정비 사업비 26억원 등 11건에 36억1000여만원을 증액했다.

앞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광주시 교통 건설국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예산안에 없던 26억

원을 키워냈다. 각 자치구의 도로개설 및 보도 정비사업 명목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북구 6억원, 나머지 4개 자치구는 5억원씩 배정했다. 전형적인 나눠먹기 예산 편성을 한 셈이다. 또한,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예산안에 없던 용봉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원과 북구 도시공원 내 안내표지판 정비 1억원, 황룡강 산책로 공중화장실 신축 및개보수 사업 7000만원 등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를 놓고 최종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의회 예결위에서도 의원들 간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산건위와 환경위에서 증액했던 26억원과 3억7000만원에 대해 원안 통과시켰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폭 넓은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에 따라 광주시가 6232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세웠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광주공공배달앱 추석맞이 이벤트 풍성

위메프오 광주공공배달앱이 추석 명절을 맞아 주민 고객을 대상으로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그간 지역민의 착한 소비에 감사하며 공공배달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인기 가전제품 3종 5대(의류 청정기, 의류 건조기, 청소기)를 9월 경품 이벤트 상품으로 내걸

었다.

주민 고객이 마케팅 문자메시지(SMS) 수신 동의 후 배달 주문을 하면 자동응답된다. 응모횟수 등 제한이 없어 많이 주문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이후에도 자체계획에 따라 경품 이벤트를 추가한다. 또 매주 토요일 페이백 20% 적립과 즉시 할인 쿠폰, 전통시장 장보기(무등시장·남광주해뜨는시장) 배달료 무료 지원도 계속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복지일자리 생산품 판매전 8일 오전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복지일자리 생산품 판매전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최원배 기자choi@kwangju.co.kr

전남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서호IC 조기 개통

전남도는 9일 오후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서호IC 구간을 추석 전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와 해남, 진도 등 전남 서남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사 중인 기업도시 진입도로는 전체 사업비 3012억원, 길이 10.83km, 왕복 4차로로 지난 2015년 착공해 2022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특히 공사 구간 중 서호IC는 국도2호선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로,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기로 운영,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난 3년 동안 53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

곳이다. 이번 조기 개통으로 통행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솔라시도는 에너지 중심의 정원도시형 스마트도시인 구성지구, 골프 중심의 관광레저도시인 삼호지구,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산업밸리인 삼포지구로 구성돼 있다.

국내 최대인 98MW의 태양광 발전단지와 세계 최대인 306의 에너지 저장장치, 총 63홀의 골프장, 태양의 정원을 완료해 운영 중이다.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산이정원, RE100 산업벨트, 주거 단지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시, 시민단체 반발에도 '부영CC 토지용도변경' 설명회

시민단체 "공공기여방안 찾기 전 용도변경 안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지 토지용도변경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시민단체 반발 속에 진행됐다.

나주시는 9일 오후 빛가람혁신도시 한 건물에서 '부영CC 잔여지 아파트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었다.

한국에너지공단 부지(40만㎡)로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지 35만여㎡에 최고 28층, 53개 동, 5328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 변경(자연녹지→제3종 일반주거지역)

을 추진해달라는 부영주택 측 사업제안과 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행사는 토지용도 변경안(나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예정됐으나 초반부터 파행을 빚었다.

광주와 전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나주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반대 시민운동본부' 회원 등 참석자 일부가 "부영 특혜 사업 중단하라", "사업명(名)조차 틀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다, 준비 안 된 주민 설명회 연기하라"고 주장하

며 설명회 개최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때문에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부영CC 잔여지 용도변경과 그에 따른 아파트 건설로 부영주택 측이 얻게 될 이익은 최소 5000억원을 웃돌 것"이라며 "나주시와 전남도는 '대학부지를 기부했으니 이 정도 편의는 제공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나, 시민사회가 이해할만한 공공기여방안을 찾기 전에는 용도변경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관계자 등 부영주택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설명회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며 행사 연기를 요구했으나, 나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등 주민설명회는 시중 어수선한 상태로 진행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이달부터 여성청소년 2만여명 생리용품 지원

광주시는 "이달부터 만 16세부터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 2만여 명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51개 고등학교 재학 여성 청소년 1만9397명과 학교 밖 여성청소년 430명이다.

재학 여성청소년은 이달부터 각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 밖 여성청소년은 '광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청소년은 생리용품 구입비로 1인당 매월 1만1500원 기준으로 하반기분으로 6만9000원

을 지역화폐(상생카드)와 학교 보건교육과 병행한 현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차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여성청소년 전체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계 열 | 모 집 단 위 | | 모 집 인 원 | |
|------------|--|-----------|-----------|--|
| | 학 과 | 수 시 | 정 시 | |
| 인 문 사 회 | 신 학 과 | 30 | 15 | |
| |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 2 | 2 | |
| 사 범 | 유아교육과 | 31 | 3 | |
| 예 능 | 음악학부 | 7 | 3 | |
| |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23 | 6 | |
| 총 계 | | 93 | 29 |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